

‘탕탕질’ 논란 광주교육감 해명

“박정희 서거일, 희화화할 생각 없어”

장휘국 “용어 사용 부적절했다” 해명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10월26일을 ‘탕탕질’로 표현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죽음을 희화화한 것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은 ‘탕탕질’ 논란에 대해 “역사교사 출신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큰 날에는 항상 SNS에 글을 올렸었다”고 밝혔다.

그는 “탕탕질이란 표현은 반일

의식을 가진 분들이 10월26일 일본과 관련해 일어난 여러 역사적인 일들을 묶어서 쓰고, 인터넷상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보고 따라 썼을 뿐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10·26사태를 직접적으로 희화화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며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탕탕질’을 너무 쉽게 사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26일 저녁 10시30분쯤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했다.

장 교육감은 “탕탕질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오늘은 탕탕질’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단지혈서, 태극기, 무궁화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장 교육감은 “110년전 안중근의 사색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전 김재규가 유신의 독재의 심장 다카기 마사오를 쏜 날”이라고 썼다.

“탕탕질”이란 단어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행하고

있는 단어다.

장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재규를 안중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다”며 “아무리 미워도 남의 말이야할 선이 있다. 장 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장 교육감의 심각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장 교육감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우유 배달원 주차장서 차 사이 끼여 숨져

60대 우유 배달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사이에 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경사로부터 우유 배달원 A씨(65)가 자신의 차와 다른 차 사이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우유 배달을 마치고 오던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차량의 기어는 중립(N)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사로에 주차해 났던 차가 밀려나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서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화 추정 불

27일 낮 12시57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21층짜리 아파트 13층 베란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전동 킥보드와 기구 일부가 소실돼 152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3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은 당시 거주자가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체중인 예인선에서 폐수 유출·긴급방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체 작업 중인 예인선 밑바닥에서 폐수가 유출돼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T호(156톤)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보령조선소에서 해체 작업 중 배 밑바닥 구멍이 난 곳에서 폐수 약 200리터를 유출해 조선소 인근에 약 100×50m의 유막이 형성됐다.

해경은 대전파출소, 보령시, 해양환경공단 등 인원 30여명을 투입해 예인선 구멍이 난 부위를 봉쇄하고 약 40m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1차 방제작업을 했다.

이어 오는 31일까지 해양환경공단에서 고압세척기를 이용해 해안가 석축 세척작업 등 해안 방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령해경은 조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선저 폐수가 유출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 동문에 사기 뒤 해외도피 40대 구속

대학 동문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2년 넘게 해외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연 20~3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대학 동문들에게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주범 조모씨(41)를 구속하고 이모씨(40) 등 공범 5명을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동문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용하는 해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겨 피해자 180명에게 205억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먼저 투자금을 낸 사람들에게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년 동안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경찰은 일당이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투자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 피해자들은 2017년 조씨를 고소했지만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

조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씨 등 공범들은 조씨의 대학 동문 또는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공범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자금 일부를 되돌려주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회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여수 경도해양단지 개발 지역업체는 ‘그림의 떡’

김기태 전남도의원

미래에셋이 추진하고 있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1조3850억 원이 투입되는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미래에셋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에셋이 제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경도해양관광단지는 2024년까지 214만353㎡(64만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조3850억원을 투입해 해상케이블카와 호텔, 콘도, 워터파크, 해수욕, 쇼핑센터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개발 사업에는 지역 업체 참여는 전무하고 대부분 대기업 위주인 1급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업체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도관광단지 개발에 일반 지역중합건설업체와 1급 업체의 공동 도급 입찰참여, 우수 전문건설 업체 하도급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기태 도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라도 공동 참여를 위한 전남도의 행정력 발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심 대형빌딩 화재진압 훈련 28일 오후 서울 중로구 계동 현대사옥에서 열린 2019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테러에 의한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안전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목포문화연대

목포문화연대가 28일 목포해상케이블카의 잦은 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포시에 촉구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55m 해상에서 다도해의 비경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잇단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포문화연대는 지난해 10월에 최초 개통하려 했으나 올 4월 19일에 이어 5월 3일로 개통을 두 번이

나 미뤘다.

그러나 또 다시 메인로프에 결함이 발견돼 새로 제작한 와이어 로프로 교체하느라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6일에야 개통했다.

문화연대는 “임시 개통에서도 2차례 멈춤으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며 “개통 이후에도 10월 7일 캐빈 로프 줄이 늘어나 캐빈 전제를 거둔 후 50여분 만에 정상 운행하는 등 크고 작은 멈춤 사고가 그동안 10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인 지난 26일 오전 9시 56분쯤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 스테이션 에스컬

레이터가 오작동, 승객 40여명이 넘어지고 16명이 다쳐 7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인사가 사고 발생했다.

목포문화연대는 “멈춤 사고 원인과 횡수 등에 대해 목포시에 확인한 결과 시는 공식적인 횡수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해상케이블카 회사 측은 ‘멈춤 사고 발생시 승객이 캐빈에서 쏙을 주거나 비상벨을 작동하여 멈추었다’고 하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설명으로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